

디지털 밈 문화의 기호학적 의미 생성과 시각디자인적 함의

글로벌 밈과 한국적 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Semiotic Meaning-Making in Digital Meme Cul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Visual Design

Focusing on Case Analyses of Global and Korean Memes

주 저 자 : 윤병권 (YUN, ByoungGoun)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겸임교수
yunbg504@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6.2.425>

접수일 2026. 05. 11. / 심사완료일 2026. 06. 15. / 게재확정일 2026. 06. 17.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emiotic structures and visual design implications of digital meme culture. Drawing on Dawkins' concept of the meme, Peirce's categories of icon, index, and symbol, and Barthes' denotation-connotation framework, it explores the multilayered processes of meaning gener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global and Korean memes reveals that identical images acquire divergent meanings depending on cultural contexts: global memes emphasize universal humor and symbolism, while Korean memes highlight social satire and collective identity.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memes function not merely as humorous images but as semiotic devices shaping social identity and collective discourse, with visual design elements serving as key mediators. Ultimately, this research provides significant academic and practical insights for visual design studies and digital communication strategies.

Keyword

Digital Meme Culture(디지털 밈 문화), Semiotics(기호학), Visual Design(시각디자인)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밈 문화의 기호학적 구조와 시각디자인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도킨스의 밈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퍼어스의 아이콘·지표·상징, 바르트의 외시·함축 의미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밈의 다층적 의미 생성 과정을 탐구하였다. 글로벌 밈과 한국적 밈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동일한 이미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변환되는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사례 분석 결과, 글로벌 밈은 보편적 유머와 상징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적 밈은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밈은 단순한 유머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하며, 시각디자인 요소는 이러한 의미 생산을 매개하는 핵심 요소임을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밈이 기호학적 의미 생성과 시각디자인적 함의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시각디자인 연구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중요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연구문제 및 목적

2. 이론적 고찰

- 2-1. 기호학적 관점: 퍼어스와 바르트의 기호학
- 2-2. 시각디자인과 기호학의 접점
- 2-3.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와 집단적 의미 생산

3. 연구 방법

- 3-1. 사례 선정 기준
- 3-2. 분석 프레임워크

3-3. 분석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배경

4. 사례 분석 결과 및 논의

- 4-1. 글로벌 밈의 기호학적 구조(국외 사례)
- 4-2. 한국적 맥락에서 변형된 밈(국내 사례)
- 4-3. 기호학적 의미 생성에 미치는 영향
- 4-4. 밈의 확산과 의미 변환 과정
- 4-5. 집단적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
- 4-6. 시각디자인적 함의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배경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확산은 시각디자인의 역할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생성·복제·확산되는 밈(meme)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생적 이미지 문화로 자리 잡았다. 밈은 단순한 유머나 오락적 요소를 넘어, 사회적 정체성 형성, 문화적 코드 공유, 집단적 의미 생산의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각디자인이 단순히 시각적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기호 체계의 매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을 “문화적 정보의 유전자적 단위”로 정의하며, 모방을 통해 확산되는 문화적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였다(Dawkins, 1976)¹⁾. 이후 밈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문화적 기호 체계의 한 축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시각디자인 연구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밈은 이미지, 텍스트, 색채, 레이아웃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고, 그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환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밈을 기호학적 특성과 문화 전파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기호의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생성·변환됨을 강조한다(쉬자오이·하오화웨이·최원호, 2022)²⁾. 또한 밈은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 성별,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확산되며, 이는 시각디자인 요소와 결합해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한다(최정현·김지호, 2024)³⁾.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밈은 짤방 문화와 같이 특정 사건이나 유행어를 이미지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글로벌 밈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의미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밈이 단순히 소비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호학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밈을 기호학적 의미 생성 과정과 시각디자인적 함의라는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각디자인이 단순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 체계의 핵심 매개로 작동함을 유의미하게 밝히고, 밈을 통해 드러나는 집단적 의미 생산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시각디자인 연구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중요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및 목적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밈(meme)은 단순한 오락적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기호 체계로 작동하며, 집단적 의미 생산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밈을 사회학·문화 연구적 관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각디자인과 기호학의 접점에서 밈을 분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밈은 이미지와 텍스트, 색채, 레이아웃 등 다양한 시각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가 기호학적 의미 생성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하다(지영은, 2021)⁴⁾. 둘째, 동일한 밈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호학적 틀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김경수, 2023)⁵⁾. 셋째, 밈의 확산 과정에서 시각디자인 요소가 집단적 의미 생산과 사회적 담론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김경수, 2023)⁶⁾.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밈의 시각적 요소가 기호학적 의미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 둘째, 밈의 확산 과정에 따른 밈의 의미 변환 과정을 탐구한다.

■ 셋째, 밈의 기호학적 구조 분석 과정에서 시각디자인 요소가 집단적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밈을 단순한 유행 이미지가 아닌 기호학적·시각디자인적 분석 대상으로 확장하고, 시각디자인 연구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학문적·실무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1) Dawkins, R.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192.

2) 쉬자오이, 하오화웨이, 최원호. 밈의 기호학적 특성과 문화의 전파. 한국영상학회논문집, 20(5), 2022, pp.65-76.

3) 최정현, 김지호. 인터넷 밈의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 이용자의 연령, 성, 지역별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5(3), 2024, pp. 301-346.

4) 지영은. 인터넷 밈과 시각언어학: 메르켈 밈 사례 분석. 독어학, 44, 2021, pp.97-115.

5) 김경수.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 〈야인시대〉 밈 이미지에 대한 매체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pp.45-85.

6) Op. cit. 5) pp.70-85.

2. 이론적 고찰

2-1. 기호학적 관점: 퍼어스와 바르트의 기호학

기호학(semiotics)은 인간이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시각디자인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퍼어스(Charles Sanders Peirce)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기호학의 두 가지 대표적 접근을 제시하며, 밈(meme)과 같은 디지털 이미지 문화의 분석에 핵심적 토대를 마련한다.

퍼어스는 기호를 아이콘(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Peirce, 1931)⁷⁾. 아이콘은 대상과 유사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며, 지표는 인과적·물리적 연관성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 상징은 사회적 규약과 문화적 합의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분은 밈의 시각적 요소가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Distracted Boyfriend' 밈에서 인물의 시선은 지표적 의미를 가지며, 특정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바르트는 기호를 외시(denotation)와 함축(connotation)의 이중 구조로 설명하였다(Barthes, 1967)⁸⁾. 외시는 기호의 직접적·표면적 의미를, 함축은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담론을 통해 생성되는 심층적 의미를 지칭한다. 바르트는 특히 대중문화와 시각적 이미지가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밈의 경우, 동일한 이미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를 가지며, 이는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퍼어스의 삼원론적 기호학과 바르트의 이중 구조적 기호학은 밈의 시각디자인적 분석에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퍼어스의 분류는 밈의 시각적 요소가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제공하며, 바르트의 분석은 밈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설명한다.

2-2. 시각디자인과 기호학의 접점

시각디자인은 단순히 미적 형식의 창출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기호 체계로 기능한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시각디자인은 이미

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며, 이는 수용자의 해석 과정에서 사회적·문화적 담론과 연결된다(Eco, 1976)⁹⁾.

크레스와 반 리우웬(Kress & van Leeuwen)은 시각디자인을 시각적 문법(visual grammar)으로 규정하며,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회적 코드와 규약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Kress & van Leeuwen, 2006)¹⁰⁾. 이는 시각디자인이 단순한 형태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특정 색채는 문화권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의미를 달리 지니며, 기호학적 해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바르트의 외시(denotation)와 함축(connotation) 구분은 시각디자인 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외시는 디자인 요소의 표면적 의미를, 함축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담론을 통해 생성되는 심층적 의미를 지칭한다(Chandler, 2007)¹¹⁾. 디지털 밈의 경우, 동일한 이미지가 외시적으로는 단순한 상황 묘사일 수 있으나, 함축적으로는 사회적 풍자나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제킨스(Jenkins)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각적 콘텐츠가 끊임없이 재가공·재해석되며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Jenkins, 2006)¹²⁾. 이는 시각디자인이 단순히 창작된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갱신하는 과정적 기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각디자인과 기호학의 접점은 의미 생성·문화적 맥락·사회적 확산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기호학적 이론을 제시한 뒤 사례 분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 분석 절차의 연결성이 다소 약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분석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였다. 첫째, 퍼어스의 아이콘·지표·상징 구분은 사례 분석에서 이미지의 사실적 재현(아이콘)과 맥락적 단서(지표), 사회적 은유와 풍자(상징)를 구체적 판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둘째, 바르트의 외시·함축 구조는 사례별로 표면적 의미와 문화적

7) Peirce, C.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 pp.228-229.

8) Barthes, R. *Elements of Semiology*. New York: Hill and Wang, 1967, pp.91-92.

9) Eco, U.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pp.35-37.

10) Kress, G., & van Leeuwen, T.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London: Routledge, 2006, pp.15-18.

11) Chandler, D. *Semiotics: The Basics*. London: Routledge, 2007, pp.62-64.

12) Jenkins, H.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2006, pp.134-136.

맥락 속에서 생성되는 심층적 의미를 구분하는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셋째, 시각디자인 요소(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상징체계)는 이론적 틀과 결합하여 사례별 의미 생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예컨대 이미지는 사실적 재현을, 색채는 문화권별 의미 차이를, 타이포그래피는 풍자적 리듬을, 레이아웃은 시선의 흐름과 관계 구조를, 상징체계는 사회적 담론 형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2-3.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와 집단적 의미 생산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는 개인의 창작 활동과 집단적 참여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빠르게 공유·재가공되는 장을 형성하며, 이는 밈(meme)과 같은 자생적 이미지 문화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담론 생산으로 이어진다(Castells, 2009)¹³⁾.

카스텔스(Castells)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를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규정하며, 개인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 생산자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밈이 단순히 소비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산되는 과정적 기호임을 보여준다(Jenkins, 2006)¹⁴⁾.

시프만(Shifman)은 밈을 디지털 문화 속에서 집단적 의미 생산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며, 밈의 확산 과정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Shifman, 2014)¹⁵⁾. 동일한 밈이 국제적으로 공유되면서도 각 문화권에서 고유한 맥락으로 재해석되는 현상은 집단적 의미 생산이 문화적 다양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버제스(Burgess)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참여적 문화(participatory culture)의 산물로 규정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Burgess, 2008)¹⁶⁾. 이는 밈이 단

순한 유행 이미지가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학적 장치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와 집단적 의미 생산은 밈 연구에서 핵심적 분석 대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밈이 어떻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생성·재가공·확산되며, 시각디자인 요소와 결합하여 집단적 의미를 생산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시각디자인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 체계의 매개로 작동함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3-1. 사례 선정 기준(Case Selection Criteria)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성·확산되는 밈(meme)을 기호학적 관점과 시각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 글로벌 밈과 한국적 밈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은 밈의 확산성, 재가공 가능성, 사회적 담론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글로벌 밈의 선정 기준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재해석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Distracted Boyfriend’ 밈은 연애 관계를 풍자하는 이미지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학업·직장·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맥락에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동일한 이미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Shifman, 2014)¹⁷⁾. 또한 ‘Doge’ 밈은 단순한 동물 이미지에서 출발했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언어적 변형과 시각적 재가공을 통해 글로벌 아이콘으로 발전하였다(Bauchhage, 2011)¹⁸⁾. 이러한 사례들은 밈이 국제적 차원에서 집단적 의미 생산의 장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적 밈의 선정 기준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자생적으로 생성·확산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짤방 문화’는 특정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장면을 캡처하여 새로운 의미로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한국적 맥락에서 밈이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

13) Castells, M.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54-57.

14) Op. cit. 12) pp.137-140.

15) Shifman, L. *Memes in Digital Culture*. Cambridge, MA: MIT Press, 2014, pp.41-44.

16) Burgess, J. *Digital Storytelling as Participatory Culture*. *Journal of Media Practice*, 9(2), 2008, 105-108.

17) Op. cit. 15) pp.55-58.

18) Bauchhage, C. *Insights into Internet Meme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2011, pp.171-174.

여준다(김경수, 2023)¹⁹⁾. 또한 <아인시대> 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한 밈은 원본 맥락과는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상황을 풍자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밈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김경수, 2023)²⁰⁾.

셋째, 사례 선정은 시각디자인적 요소의 분석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밈은 이미지와 텍스트, 색채, 레이아웃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기호학적 의미 생성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글로벌 밈은 개별 이미지 단위로 선정되었고, 한국적 밈은 드라마 짤방 문화, 정치 풍자 밈, 인터넷 유행어 밈 등 장르·유형 단위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교 단위의 차이는 단순한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글로벌 밈은 특정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재해석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밈의 문화적 변환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반면, 한국적 밈은 개별 이미지보다 특정 장르·유형이 집단적으로 소비되고 재가공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예컨대 한국의 ‘짤방 문화’는 특정 드라마 장면이나 예능 프로그램 캡처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개별 이미지보다는 장르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적 맥락에서 집단적 정체성과 사회적 풍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글로벌 밈과 한국적 밈을 각각 다른 단위로 선정한 것은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다. 글로벌 밈은 개별 이미지의 확산과 변형을 통해 의미 생성 과정을 보여주고, 한국적 밈은 장르·유형의 집단적 소비와 재가공을 통해 사회적 담론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사례 단위의 불일치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따른 밈의 의미 생산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 분석 프레임워크(Analytical Framework)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밈(meme)의 기호학적 분석을 위해 제시된 퍼어스의 아이콘-지표-상징과 바르트의 외사-함축 구조의 기호학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퍼어스의 분석 틀은 시각적 요소가 단순한 이미지 재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로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며 바르트의 분석 틀은 외사

적으로는 단순한 상황 묘사를, 함축적으로는 사회적 풍자나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적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한편, 퍼어스의 아이콘-지표-상징과 바르트의 외사-함축 구조를 공통 분석 틀로 적용하여 글로벌 및 한국적 밈 사례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한 것은 사례 간 비교가 단순한 해석 부여에 그치지 않고, 공통된 기호학적 구조와 차별적 문화적 패턴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글로벌 밈은 보편적 유머 코드와 상징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적 밈은 특정 사건·유행어를 풍자적으로 재가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연구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사례 나열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따른 의미 생성 구조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3-3. 분석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프레임워크는 퍼어스(Charles S. Peirce)의 삼원론적 기호학과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이중 구조적 기호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두 이론은 밈(meme)의 시각적 요소와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밈이 갖는 의미 생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퍼어스는 기호를 아이콘(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하였다. 아이콘은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지표는 인과적·물리적 연관성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며, 상징은 사회적 규약과 문화적 합의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Peirce, 1931)²¹⁾. 이러한 구분은 밈의 시각적 요소가 단순한 이미지 재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로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바르트는 기호를 외사(denotation)와 함축(connotation)의 이중 구조로 설명하였다. 외사는 기호의 직접적·표면적 의미를, 함축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담론을 통해 생성되는 심층적 의미를 지칭한다(Barthes, 1967)²²⁾. 밈의 경우 동일한 이미지가 외사적으로는 단순한 상황 묘사일 수 있으나, 함축적으로는 사회적 풍자나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바르트의 이론은 밈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디지털 밈 연구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19) Op. cit. 5) pp.47-52.

20) Op. cit. 5) pp.45-50.

21) Op. cit. 7) pp.228-229.

22) Op. cit. 8) pp.91-92.

에코(Eco, 1976)는 기호학을 “의미 생성의 체계적 과정”으로 규정하며, 기호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갱신된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는 밈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재가공 재해석되며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찬들러(Chandler, 2007)는 기호학적 분석이 시각디자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이 사회적 의미 생산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²⁴⁾.

디지털 밈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호학적 접근은 중요한 분석 틀로 활용되어 왔다. 시프만(Shifman, 2014)은 밈을 디지털 문화 속에서 집단적 의미 생산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며, 밈의 확산 과정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버제스(Burgess, 2008)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참여적 문화의 산물로 규정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김경수(2023)와 지영은(2021) 등의 연구가 드라마 장면이나 인터넷 유행어를 활용한 밈이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함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는 퍼어스와 바르트의 기호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밈의 시각적 요소와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또한 에코, 찬들러, 시프만, 버제스 등의 선행 연구는 밈이 단순한 유행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기호 체계의 핵심 매개체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표 1]과 같이 연구 분석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표 1] 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구분	정의	분석 기준(내용)	적용 예시
아이콘적 의미 (Icon)	기호가 대상과 유사성을 통해 의미를 전달	- 이미지가 실제 대상과 얼마나 닮았는가? - 시각적 재현의 사실성 여부 - 인물·동물·사물의 외형적 특징 반영	인물 사진, 동물 이미지, 드라마 장면 캡처
지표적 의미 (Index)	기호가 대상과 인과적·물리적 연관성을 통해 의미를 생성	- 특정 행동·표정·시선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 맥락적 단서(제스처, 상황, 배경) 분석 - 사건·감정·관계의 직접적 지시 여부	시선 방향, 주먹 친 행동, 분노 표정

23) Op. cit. 9) pp.35-37.

24) Op. cit. 11) pp.62-64.

25) Op. cit. 16) pp.105-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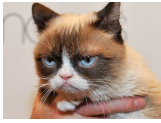
구분	정의	분석 기준(내용)	적용 예시
상징적 의미 (Symbol)	사회적 규약과 문화적 합의에 의해 의미가 형성	-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유되는 의미 - 은유·풍자·집단적 코드로 작동 여부 - 특정 이미지가 사회적 담론을 상징하는가?	권력 풍자, 팬덤 정체성, 사회적 냉소
외시적 의미 (Denotation)	기호의 직접적·표면적 의미, 사실적 묘사	- 이미지가 나타내는 1차적 의미 - 장면·대사·행동의 직접적 설명 - 맥락 없는 단순 묘사	드라마 장면, 아이 사진, 고양이 얼굴
함축적 의미 (Connotation)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성되는 심층적 의미	- 이미지가 사회적 풍자·비판·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가? - 문화권별 의미 변환 여부 - 집단적 담론과 연결되는 해석	정치 풍자, 사회적 불만, 학업·직장 풍자

4. 사례 분석(Case Analysis)

4-1. 글로벌 밈의 기호학적 구조(국외 사례)

글로벌 밈(meme)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성·확산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기호학적 의미를 획득한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 글로벌 밈 6가지를 선정하여 글로벌 밈의 시각적 요소가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환되는지를 탐구한다. [표 2]는 사례 분석에 사용한 글로벌 밈 이미지 6가지다.

[표 2] 글로벌 밈 이미지 6가지

밈 사례	이미지
Distracted Boyfriend	
Doge	
Success Kid	
Grumpy Cat	
Woman Yelling at a Cat	

밈 사례	이미지
Galaxy Brain	 

4-1-1. Distracted Boyfriend 밈 분석

‘Distracted Boyfriend’ 밈은 연애 관계의 갈등 상황을 사진으로 재현한 이미지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의미 층위를 드러낸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은 실제 상황을 유사하게 재현하며, 이는 수용자에게 사실적 장면으로 인식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남성의 시선이 욕망과 관심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특정 관계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상징적 의미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 혹은 ‘유혹’의 은유로 작동하며, 이는 연애 관계를 넘어 학업·정차·소비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연애 관계의 갈등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기존 가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의 이동’을 풍자하는 사회적 코드로 기능한다. Distracted Boyfriend 밈 분석 요약은 [표 3]과 같다.

[표 3] Distracted Boyfriend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은 실제 상황을 유사하게 재현
지표적 의미	남성의 시선은 욕망과 관심의 방향을 지시.
상징적 의미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 혹은 ‘유혹’의 은유로 작동.
외시적 의미	연애 관계의 갈등 상황.
함축적 의미	학업·정차·소비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기존 가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의 이동’을 풍자

4-1-2. Doge 밈 분석

‘Doge’ 밈은 시바견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로, 인터넷 문화 속에서 독특한 기호학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개의 얼굴은 실제 동물과 높은 유사성을 지니며, 이는 수용자에게 사실적 재현으로 인식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표정이 감정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단순한 동물 이미지가 감정 표현의 매개로 작동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귀여움’과 ‘풍자적 유머’의 상징으로 발전하며,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한 동물 사진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인터넷 문화의 자기풍자와 더불어 암호화페 ‘Dogecoin’의 상징

로 확장되었다. Doge 밈 분석 요약은 [표 4]와 같다.

[표 4] Doge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개의 얼굴은 실제 동물과 유사성을 지님.
지표적 의미	표정은 감정적 반응을 지시.
상징적 의미	‘귀여움’과 ‘풍자적 유머’의 상징으로 발전.
외시적 의미	단순한 동물 사진.
함축적 의미	인터넷 문화의 자기풍자, 암호화페 ‘Dogecoin’의 상징으로 확장

4-1-3. Success Kid 밈 분석

‘Success Kid’ 밈은 어린아이가 주먹을 쥐고 승리의 표정을 짓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일상적 성취와 긍정적 경험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아이의 표정은 실제 감정 표현과 유사하여 사실적 재현으로 인식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주먹을 쥔 행동이 ‘성취’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이는 작은 성공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상징적 의미로는 개인적 승리와 성취의 은유로 작동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긍정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아이의 사진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일상적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기능한다. Success Kid 밈 분석 요약은 [표 5]와 같다.

[표 5] Success Kid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아이의 표정은 실제 감정 표현과 유사.
지표적 의미	주먹을 쥔 행동은 ‘성취’를 지시.
상징적 의미	작은 승리와 성취의 은유.
외시적 의미	아이의 사진.
함축적 의미	일상적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

4-1-4. Grumpy Cat 밈 분석

‘Grumpy Cat’ 밈은 고양이이의 특유한 불만스러운 표정을 담은 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냉소적 태도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발전하였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고양이이의 얼굴은 실제 동물과 높은 유사성을 지니며, 사실적 재현으로 인식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표정이 ‘불만’과 ‘냉소’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단순한 동물 이미지가 감정 표현의 매개로 작동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사회적 냉소와 반(反)유쾌의 은유로 가능하며, 이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피로와 불만을 공유하는 집단적 코드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고양이이의 사진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현대 사회의 피로와 냉소적 태도를 풍자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작동한다.

다. Grumpy Cat 밈 분석 요약은 [표 6]과 같다.

[표 6] Grumpy Cat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고양이의 얼굴은 실제 동물과 유사.
지표적 의미	표정은 ‘불만’과 ‘냉소’를 지시.
상징적 의미	사회적 냉소와 반(反)유희의 상징.
외시적 의미	고양이의 사진.
함축적 의미	현대 사회의 피로와 냉소적 태도를 풍자

4-1-5. Woman Yelling at a Cat 밈 분석

‘Woman Yelling at a Cat’ 밈은 한쪽에서는 격렬하게 소리치는 여성의 모습, 다른 한쪽에서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고양이의 이미지를 결합한 사례로, 대립과 불일치의 은유를 담고 있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인물과 동물의 모습은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지표적 의미에서는 여성의 제스처와 표정이 ‘분노’를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인간과 동물의 대비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의견 충돌을 은유하며, 이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집단적 코드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인간과 동물의 대립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의견 불일치를 풍자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기능한다. Woman Yelling at a Cat 밈 분석 요약은 [표 7]과 같다.

[표 7] Woman Yelling at a Cat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인물과 동물의 모습은 실제 상황을 재현.
지표적 의미	여성의 제스처와 표정은 ‘분노’를 지시.
상징적 의미	대립과 불일치의 은유.
외시적 의미	인간과 동물의 대립 장면.
함축적 의미	사회적 갈등과 의견 충돌을 풍자하는 집단적 코드

4-1-6. Galaxy Brain 밈 분석

‘Galaxy Brain’ 밈은 뇌의 단계적 확장 이미지를 통해 과도한 자기 확신과 과잉 해석을 풍자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뇌의 시각적 표현은 실제 기관과 유사하여 사실적 재현으로 인식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빛과 확장이 ‘지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이는 시각적 요소가 인지적 과정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과도한 자기 확신과 ‘과잉 해석’의 은유로 기능하며, 인터넷 문화 속에서 집단적 풍자의 코드로 자리 잡는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뇌의 단계적 확장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담론에서 ‘과장된 지적 태도’를 풍자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작동한다. Galaxy Brain 밈 분석 요약은 [표 8]과 같다.

[표 8] Galaxy Brain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뇌의 시각적 표현은 실제 기관과 유사
지표적 의미	빛과 확장은 ‘지적 성장’을 지시.
상징적 의미	과도한 자기 확신과 ‘과잉 해석’의 은유.
외시적 의미	뇌의 단계적 확장 이미지.
함축적 의미	사회적 담론에서 ‘과장된 지적 태도’를 풍자

4-1-7. 동일 이미지의 문화적 맥락별 의미 변환

‘다음 [표 9]는 사례 분석에 사용된 글로벌 밈 이미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변환되는 과정을 요약하였다.

[표 9] 동일 이미지의 문화적 맥락별 의미 변환 요약

밈 사례	구분	문화적 맥락의 변환내용
Distracted Boyfriend	글로벌	연애 관계의 갈등과 ‘새로운 선택’의 은유로 사용.
	한국	학업·취업·정치 풍자에 활용되며, ‘기존 가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동’이라는 사회적 코드로 변환. 예컨대 취업 준비생이 안정된 직장을 외면하고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상황을 풍자하는 식으로 변형.
Doge	글로벌	귀여움과 풍자적 유머의 상징, 나아가 암호화폐 Dogecoin의 아이콘으로 발전.
	한국	단순한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술하지만 친근한 풍자의 코드로 사용. 특히 한국식 자막과 결합해 ‘춘철살인의 농담’으로 변형.
Success Kid	글로벌	개인적 성취와 긍정적 결과의 상징.
	한국	가족·학업 맥락에서 변형되어, ‘엄마가 허락했다’ 또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식으로 일상적 성취를 풍자하는 도구로 사용
Grumpy Cat	글로벌	냉소와 불만의 상징, 인터넷 유머 코드로 확산.
Grumpy Cat	한국	‘짜증나는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풍자하는 데 활용되며, 한국적 정서인 ‘시니컬한 불평’과 결합해 사회적 냉소를 표현하는 장치로 변환.
Woman Yelling at a Cat	글로벌	감정적 대립과 유머러스한 상황의 상징.
	한국	정치적 논쟁이나 세대 갈등을 풍자하는 데 자주 활용되며,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는 한국적 사회 풍자를 담아냄.
Galaxy Brain	글로벌	과도한 지식·인식의 은유, 풍자적 과장.
	한국	‘억지 논리’나 ‘과장된 자기합리화’를 풍자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인터넷 토론 문화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진지하게 포장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코드로 변형

4-1-8. 소결

국의 밈 사례는 시각적 요소가 기호학적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맥락과 결합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미지와 텍스트, 색채, 레이아웃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기호학적 코드로 작동하며, 수용자가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풍자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즉 이러한 다층적 의미 구조는 이 밈들이 단순한 유머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호학적 장치 내지는 문화적 코드임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이미지가 글로벌 환경에서 유머와 자기풍자의 코드로 소비되면서도, 각 문화권의 사회적 규약과 결합하여 다른 함축적 의미를 획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2. 한국적 맥락에서 변형된 밈(국내 사례)

한국적 밈(meme)은 글로벌 밈과 달리 특정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담론 속에서 생성·확산되며, 독자적인 의미 체계를 형성한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 한국적 밈 6가지를 선정하여 한국적 밈이 어떻게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한다. [표 10]은 사례 분석에 사용한 한국적 밈 이미지 6가지다.

[표 10] 한국적 밈 이미지 6가지

밈 사례	이미지
드라마 짤방 문화	
야인시대 밈	
문화적 패러디 밈	
정치 풍자 밈	

밈 사례	이미지
인터넷 유행어 밈	
K-Pop 아이돌 밈	

4-2-1. 드라마 짤방 문화 밈 분석

‘드라마 짤방 문화’는 한국적 인터넷 밈의 대표적 형태로, 특정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여 새로운 의미로 재맥락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인물의 표정과 동작은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이는 수용자에게 높은 현실감을 전달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대사와 제스처가 특정 감정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원래의 극적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을 은유하는 코드로 작동하며, 정치·사회적 담론을 비판하는 도구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풍자를 공유하는 집단적 담론의 표현으로 기능한다. 드라마 짤방 문화 밈 분석 요약은 [표 11]과 같다.

[표 11] 드라마 짤방 문화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드라마 속 인물과 장면은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높은 사실성을 전달.
지표적 의미	인물의 표정, 대사, 제스처가 특정 감정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원래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
상징적 의미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의 은유로 작동하며, 정치·사회적 상황을 비판하거나 대중적 불만을 표현하는 문화적 코드로 확장.
외시적 의미	단순히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로, 원본 맥락의 사실적 묘사에 그침.
함축적 의미	사회적 갈등과 풍자를 공유하는 집단적 담론의 표현으로 기능하며, 한국적 맥락에서 독자적 의미 체계를 형성.

4-2-2. <야인시대> 밈 분석

드라마 ‘야인시대’ 장면을 활용한 밈은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사회적 풍자의 사례로 자리 잡았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인물의 격렬한 표정과

동작은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강한 현실감을 전달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대사와 몸짓이 갈등과 대립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원래 극적 맥락을 넘어 사회적 긴장과 권력 관계를 상징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사회적 불평등을 풍자하는 은유로 작동하며, 대중이 공유하는 집단적 코드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건과 대중적 불만을 풍자하는 집단적 담론의 장치로 기능한다. 아인사데 밈 분석 요약은 [표 12]와 같다.

[표 12] <아인사데>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드라마 속 인물의 격렬한 표정과 동작은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
지표적 의미	인물의 대사와 몸짓은 갈등과 대립을 직접적으로 지시.
상징적 의미	정치·사회적 권력 다툼과 불평등을 풍자하는 은유로 작동.
외시적 의미	단순히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
함축적 의미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건과 대중적 불만을 풍자하는 집단적 코드로 변환되어, 원작 맥락을 넘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활용됨.

4-2-3. 문학적 패러디 밈 분석

‘문학적 패러디 밈’은 고전 문학 작품이나 유명 문학 텍스트를 차용하여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생성된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원작의 장면이나 인물 이미지는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시각적 유사성을 확보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특정 문구나 장면이 원작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문학적 권위를 빌려 풍자와 비판의 은유로 작동하며, 대중이 공유하는 집단적 코드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문학 작품의 인용이나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원작의 상징성을 차용해 사회적 담론을 풍자하거나 대중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문학적 패러디 밈 분석 요약은 [표 13]과 같다.

[표 13] 문학적 패러디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원작 문학 작품의 장면이나 인물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시각적 유사성을 확보.
지표적 의미	특정 문구나 장면이 원작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동시에 새로운 의미로 변환됨.

구분	분석내용
상징적 의미	문학적 원작을 차용하여 사회적 풍자와 문화적 비판의 은유로 작동, 집단적 코드로 확장.
외시적 의미	단순히 문학 작품의 장면이나 인용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이미지. 문학 작품의 한 구절.
함축적 의미	원작의 권위와 상징성을 빌려 사회적 담론을 풍자하거나 대중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

4-2-4. 정치 풍자 밈 분석

정치 풍자 밈은 대중문화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적 불만과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시각적 코드로 기능한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정치인의 모습이나 발언은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현실감을 전달하며, 지표적 의미에서는 특정 표정·제스처·발언이 권력 관계와 사회적 긴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풍자하는 은유로 작동하며, 대중이 공유하는 집단적 코드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이나 장면을 담은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대중의 불만과 정치적 비판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담론의 장치로 기능한다. 정치 풍자 밈 분석 요약은 [표 14]와 같다.

[표 14] 정치 풍자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정치인이나 사회적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이미지.
지표적 의미	특정 제스처·표정·발언이 권력 관계와 사회적 긴장을 직접적으로 지시.
상징적 의미	정치 권력의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풍자하는 은유로 작동.
외시적 의미	정치인의 모습이나 발언을 담은 사진.
함축적 의미	대중의 불만과 정치적 비판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코드로 확장되어 사회적 담론 형성에 활용됨.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풍자를 반영.

4-2-5. 인터넷 유행어 밈 분석

인터넷 유행어 밈은 온라인 공동체에서 특정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미지와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유행어가 삽입된 장면이나 인물 이미지는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시각적 유사성을 확보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특정 문구와 표정·행동이 감정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수용자에게 즉각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대중이 공유하는 언어적 코드가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을 은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유행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반복과

변형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풍자하고 온라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인터넷 유행어 밈 분석 요약은 [표 15]와 같다.

[표 15] 인터넷 유행어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유행어가 삽입된 이미지나 장면은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
지표적 의미	특정 문구와 표정·행동이 직접적으로 감정이나 사건을 지시
상징적 의미	대중이 공유하는 언어적 코드로 작동하며, 사회적 풍자와 집단적 정체성을 은유
외시적 의미	단순히 유행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함축적 의미	유행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풍자하고, 온라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

4-2-6. K-Pop 아이돌 밈 분석

K-Pop 아이돌 밈은 글로벌 팬덤 문화 속에서 생성·확산되며, 대중적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능한다. 아이콘적 차원에서 무대 장면과 아이돌의 행동·표정은 실제 공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시각적 현실감을 전달한다. 지표적 의미에서는 특정 안무·제스처·대사가 팬덤의 감정과 반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수용자에게 즉각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상징적 의미로는 아이돌 이미지가 팬덤 문화와 집단적 정체성을 은유하는 코드로 작동하며, 나아가 글로벌 K-Pop 문화의 상징으로 확장된다. 외시적 의미는 단순히 아이돌의 무대 사진이나 팬서비스 장면에 불과하지만, 함축적 의미에서는 팬덤의 열정과 집단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풍자·상징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K-Pop 아이돌 밈 분석 요약은 [표 16]과 같다.

[표 16] K-Pop 아이돌 밈 분석 요약

구분	분석내용
아이콘적 의미	아이돌의 무대 장면과 표정은 실제 공연을 사실적으로 재현
지표적 의미	특정 제스처·안무·대사가 팬덤의 감정과 반응을 직접적으로 지시
상징적 의미	아이돌 이미지가 팬덤 문화와 집단적 정체성을 은유하며, 글로벌 K-Pop 코드로 확장
외시적 의미	단순히 아이돌의 무대 사진이나 팬서비스 장면
함축적 의미	팬덤의 열정과 집단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풍자·상징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

4-2-7. 소결

국내 밈 사례는 시각적 요소가 사회적 맥락과 긴밀히 결합하여 집단적 의미를 생산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밈은 특정 드라마 장면이나 예능 프로그램의 대사, 뉴스 화면 등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시각 자료를 재가공하여 사회적 풍자와 정체성 형성에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 사회적 담론을 조직하는 기호학적 코드로 작동하며, 수용자들은 이를 통해 공동체적 경험과 문화적 코드를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밈들의 다층적 의미구조는 단순히 유행 이미지가 아니라 한국적 맥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작용한다.

다음은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 목적에 대한 논의다.

4-3. 밈의 시각적 요소가 기호학적 의미 생성에 미치는 영향

밈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성·재가공·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시각적 요소가 기호학적 의미를 생산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이미지, 텍스트, 색채, 레이아웃 등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기호학적 코드로 기능하며, 수용자가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문화적 담론과 연결된다. 퍼어스의 삼원론적 기호학에 따르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은 아이콘적 의미를, 시선이나 제스처는 지표적 의미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공유되는 은유와 풍자는 상징적 의미를 형성한다. 바르트의 외시·함축 구조에 따르면 동일한 이미지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상황 묘사일 수 있으나, 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풍자와 정체성 형성의 함축적 의미를 획득한다.

첫째, 밈의 시각적 요소는 이러한 기호학적 구조 속에서 단순한 재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 체계로 작동한다. 이는 시각적 요소가 수용자의 해석을 유도하고 사회적 코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둘째, 동일한 이미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시각디자인이 기호학적 의미 생성의 출발점이자 집단적 의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밈의 시각적 요소는 집단적 담론 형성과 사회적 정체성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빠르게 공유·재가공되는 과정 속에서 시각적 요소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조직하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며, 수용자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적 코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밈의 시각적 요소는 수용자의 해석을 유도하고, 사회적 코드와 결합하여 집단적 담론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밈은 단순한 유행 이미지를 넘어 사회적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4-4. 밈의 확산과 의미 변환 과정

밈(meme)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그 과정에서 원본의 의미가 변형되고 새로운 사회적 함의를 획득한다. 이러한 확산과 의미 변환은 단순한 이미지 공유를 넘어, 집단적 참여와 재가공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확산 과정은 네트워크의 참여성과 상호작용성에 의해 촉진된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팬덤 문화와 같은 플랫폼은 밈의 빠른 전파를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밈을 재가공한다(Jenkins, 2006).

둘째, 의미 변환 과정은 기호학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피어스의 삼원론적 기호학에 따르면, 밈의 아이콘적 요소는 원본 이미지의 사실성을 유지하지만, 지표적·상징적 의미는 재가공 과정에서 변화한다. 바르트의 외사·함축 구조로 보면, 외사적 의미는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함축적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환된다(Barthes, 1967).

셋째, 문화적 맥락에 따른 변형은 밈의 의미 변환을 더욱 다층적으로 만든다. 글로벌 밈은 국제적으로 공유되면서도 각 문화권에서 고유한 맥락으로 재해석된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아인시드> 드라마 장면이 정치·사회적 풍자의 도구로 활용되며, 이는 원본 맥락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사례이다(김경수, 2023). 이러한 현상은 밈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문화적 담론을 생산하는 기호학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넷째, 집단적 의미 생산은 밈의 확산과 변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한다. 사용자는 밈을 공유하고 재가공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담론을 강화한다. 이는 밈이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 속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적 기호 체계의 매개로 작동함을 의미한다(Shifman, 2014).

따라서 밈의 확산과 의미 변환 과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의 참여성과 기호학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시각디자인 요소와 결합하여 집단적 의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4-5. 밈의 기호학적 구조 분석 과정에서 시각디자인 요소가 집단적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

밈(meme)의 기호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각디자인 요소는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넘어 의미 생산의 핵심적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색채(color),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레이아웃(layout)은 이미지(image)가 갖는 원천적 의미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밈의 시각적 전달력과 사회적 함축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집단적 의미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첫째, 색채(color)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기호적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Galaxy Brain’ 밈에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뇌 이미지와 함께 사용되는 푸른빛과 보라색 계열은 초월적·지적 확장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반면 ‘Grumpy Cat’ 밈에서 어두운 톤은 냉소와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며, 이는 함축적 의미로서 사회적 피로와 냉소적 태도를 반영한다. 색채는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기호학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둘째,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의미를 확장한다. ‘Doge’ 밈에서 사용된 Comic Sans 폰트는 유치하고 단순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밈의 풍자적 유머와 자기비하적 성격을 강화한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인터넷 유행어 밈(예: “이게 나라냐”)에서 굵고 단순한 글꼴이 집단적 분노와 풍자의 함축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의 외사적 의미를 넘어, 시각적 스타일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레이아웃(layout)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 구조를 통해 의미의 흐름을 조직한다. ‘Distracted Boyfriend’ 밈은 세 인물의 배치와 시선 방향이 내러티브를 형성하며, 이는 지표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Woman Yelling at a Cat’ 밈은 두 장면을 병치하는 레이아웃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은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한국적 짤방 문화에서도 드라마 장면과 텍스트 캡션의 결합은 풍자적 의미를 강화하며, 이는 레이아웃이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색채,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은 밈의 시각적 요소가 단순히 미적 장식이 아니라, 기호학적 의미 생성과 집단적 의미 생산을 매개하는 핵심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4-6. 시각디자인적 함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디자인 실무

밈(meme)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시각디자인 연구와 실무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밈은 단순한 유행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집단적 의미를 생산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은 시각디자인의 전략적 활용과 실무적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밈은 참여성과 확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의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밈은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재가공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확장된다. 따라서 시각디자인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집단적 담론을 형성하는 전략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광고, 정치 캠페인, 사회적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밈을 활용한 시각디자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디자인 실무의 관점에서 밈은 색채,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과 같은 시각적 요소가 의미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를 제공한다. 디자인은 밈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시각적 요소가 어떻게 외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함축적 의미를 변환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정 색채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의 풍자적 성격을 강조하며, 레이아웃은 내러티브와 담론을 시각적으로 조직한다. 이러한 분석은 디자인 실무에서 밈을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 생산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디지털 밈은 단순한 유머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생성 과정은 추상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시각디자인 요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매개된다. 따라서 밈의 시각디자인적 함의를 논할 때는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상징체계와 같은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미지(Image): 원본 사진이나 드라마 캡처는 아이콘적 의미를 제공하며, 사실적 재현을 통해 수용자의 몰입을 유도한다. 이는 밈이 단순한 시각적 기록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색채(Color): 이미지의 정서적 분위기를 규정하고, 기호학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강화한다. Galaxy

Brain 밈에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뇌 이미지와 함께 사용되는 푸른빛·보라색 계열은 초월적·지적 확장의 은유로 작동한다. 반면 Grumpy Cat 밈의 어두운 톤은 냉소와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며, 사회적 피로와 냉소적 태도를 반영한다. 한국적 밈에서는 붉은색 자막이 분노와 풍자를 강화하는 장치로 자주 활용된다.

셋째,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텍스트의 크기, 폰트, 강조 방식은 풍자적 함축을 강화한다. Doge 밈의 파편화된 문구는 독특한 언어적 리듬을 형성하여 인터넷 문화의 자기풍자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넷째, 레이아웃(Layout):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 방식은 수용자의 시선 흐름을 결정하며, 의미 해석의 방향을 규정한다. 예컨대 ‘Distracted Boyfriend’ 밈에서 인물의 위치와 시선 방향은 관계의 불균형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사회적 풍자의 효과를 강화한다.

다섯째, 상징체계(Symbolic System): 특정 색채나 반복되는 시각적 코드(예: ‘Galaxy Brain’ 밈의 단계적 확장 이미지)는 사회적 담론 속에서 은유와 풍자의 장치로 작동한다. 이는 밈이 단순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집단적 의미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결국 밈의 시각디자인적 함의는 디자인 요소가 기호학적 의미 생성의 핵심 매개체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향후 시각디자인 연구에서 밈을 분석할 때, 기호학적 구조와 디자인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밈의 시각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집단적 담론 형성과 문화적 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밈의 시각디자인적 함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디자인 실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밈은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 속에서 집단적 의미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각디자인이 사회적 기호 체계의 매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성·확산되는 밈(meme)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각디자인 요소가 집단적 의미 생산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글로벌 밈과 한국의 대표적 밈 12가지 사례를 선정하

였고, 퍼어스의 삼원론적 기호학(아이콘-지표-상징)과 바르트의 이중 구조적 기호학(외사-함축)을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밈은 색채·타이포그래피·레이아웃과 같은 시각디자인 요소를 통해 외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함축적 의미를 변환하였으며, 집단적 참여와 재가공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기호학적 장치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밈과 한국적 밈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일한 이미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밈이 단순한 유행 콘텐츠가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적 의미 생산을 매개하는 중요한 시각디자인적 장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디자인 연구가 디지털 문화 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갖는다.

실무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브랜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밈은 참여성과 확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브랜드와 조직은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집단적 담론 속에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다. 특히 밈은 사회적 캠페인, 정치적 메시지, 기업 브랜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시각디자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로 기능한다. 또한 이미지, 색채,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상징체계와 같은 시각디자인 요소는 밈의 기호학적 구조 속에서 브랜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경험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랜딩 전략에서 밈이 단순한 유행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분석 대상이 특정 시기와 플랫폼에 제한되어 있으며,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와 결론이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 글로벌 밈과 한국적 밈의 맥락을 비교하였으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밈 확산 양상을 포함하여 플랫폼별 특성과 의미 변환 과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결합하여 밈의 확산 속도, 사용자 참여 패턴, 네트워크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적 확장도 요구된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권을 포괄하는 비교 연구를 통해 밈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의의는 디지털 밈을 시각디자

인 연구의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확장하고, 디지털 밈이 기호학적 의미 생성과 시각디자인적 함의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과 집단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데 있다. 또한 시각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기호 체계의 매개로서 시각디자인 연구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중요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참고문헌

1. 김경수.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 <아인시대> 밈 이미지에 대한 매체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2. 쉬자오이, 하오화웨이, 최원호. 밈의 기호학적 특성과 문화의 전파. 한국영상학회논문집, 20(5), 2022.
3. 지영은. 인터넷 밈과 시각언어학: 메르켈 밈 사례 분석. 독어학, 44, 2021.
4. 최정현, 김지호. 인터넷 밈의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 이용자의 연령, 성, 지역별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5(3), 2024.
5. Barthes, R. Elements of Semiology. New York: Hill and Wang, 1967.
6. Bauckhage, C. Insights into Internet Meme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2011.
7. Burgess, J. Digital Storytelling as Participatory Culture. Journal of Media Practice, 9(2), 2008.
8. Castells, M.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9. Chandler, D. Semiotics: The Basics. London: Routledge, 2007.
10. Dawkins, R.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11. Eco, U.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12. Jenkins, H.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2006.
13. Kress, G., & van Leeuwen, T.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London: Routledge, 2006.
14. Peirce, C.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
15. Shifman, L. Memes in Digital Culture.
Cambridge, MA: MIT Press, 2014.